테마칼럼

여성세계 | 정치브리핑 | 경제의 눈 | 문화향기

‘새로운 性’의 정치학

김 효 선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 여성들의 대거 사회진출과 약진은 새로운 미래의 물결이 다가오는 희망이다.

2007년 대한민국 여성들은 활기찬 움직임으로 새해 인사를 했다. 올해 임용되는 판사 중 66%가 여성. 신규 고소득 일자리의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수한 여성인재들이 봇물터지듯 배출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미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80.8%로 남성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1970년에 1.6%였던 여성 대졸자도 35년만에 24.2%로 증가했다.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우리나라의 파워엘리트 계층 속으로 대다수가 진입하고 있는 현상은 향후 10년 이후의 엄청난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여자 과장 부장 한두명 씩 있는 ‘홍일점’조직은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일상화 되어 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신입생을 여성으로 받아들인 조직은 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여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게 불가피하다. 여성은 더 이상 홍일점도 소수도 약자도 아니며 다수이며 주류가 된다. 특히 이들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커지면 여성의 선호와 취향은 조직의 기준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쯤되면 웬만한 여성운동은 약화되거나 새로운 형태가 되고, 남성운동이나 기타 개성의 자유를 위한 사회운동들이 활발해 질 것이다.

유리천장의 파괴

우리 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뒤바꾸는 ‘성의 정치학’은 신입 말단 단계뿐 아니라 최고위직 단계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시작됐다. 이미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가 여성이고, 대통령 후보로도 여성들이 복수로 거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 부는 여풍도 좋은 자극제다. 미국 최초 여성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110대 의회 개원식에서 유리 천장의 파괴를 선언했다. “우리는 오늘 대리석 천장을 부쉈다. 이제 우리를 막는 것은 하늘 뿐이다.”라고. 여성신문에서는 2006년 올해의 인물로 한명숙 총리를 선정하면서 최고위직의 유리천장 파괴를 통해 젊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주요 선정이유로 들었다. 이제 여성의 승진과 관련해서 적어도 국무총리선 까지는 “전례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다. 더욱이 정당 대표, 대통령 후보, 우주인 까지도 여성이 등장 했으니, 이제 여자가 할 수 없다는 말은 농담처럼 실없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이런 여성들의 약진을 단순히 ‘여풍(女風)’으로 규정하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또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갖는가 하면 역차별을 주장하고, 복고적인 정의감을 불태우는 등 일련의 행동들은 상당한 부적응증의 증세들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성의 정치학’의 지각변동에 따라 사회변화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생존과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다. 광풍 가운데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적응’의 기술을 읽혀가야 한다. 새로운 성의 정치학 시대에 필요한 적응의 기술이란 ‘파트너쉽’을 익히는 것이다. 새로운 파트너쉽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새롭게 익혀야 하는 삶의 자세이고 사회 질서이고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의존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소통하는 방법, 평등하면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방법, 성적 대상이 아닌 동료와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성희롱을 하지 않는 방법, 부드러우면서도 독립적으로 사는 방법 등등.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던 매너와 사고방식이 필요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새로운 파트너쉽 익혀야

여성들의 대거 사회진출과 약진은 새로운 미래의 물결이 다가오는 희망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망쳐왔던 부정부패, 물량적 사고, 개발만능주의, 권위주의, 정실주의, 연고주의 등등 고질적인 사회악을 단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과거의 부정과 단절된 새로운 인적자원의 투입은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자원 통합력을 높혀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새로운 변화 추진력으로서의 사명감 실천할 때 존재이유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전남, 지역발전 꼴찌에 삶의 질 최하위라니

전국에서 가장 발전이 안된 지역이 전남이라고 한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3년동안 산업개발,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환경 등 10개 분야, 29개 지표를 종합해 지역의 발전 정도를 조사한 결과다. 발전도가 낮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광양제철과 여수산단 등이 있는 전남이 전국 꼴찌라니 충격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발전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울산, 대전, 경기가 뒤를 이었고 광주는 5위였다. 전북은 전남에 한 단계 앞서 15위에 머물렀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전북 등 낙후지역의 경제력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남은 삶의 질을 반영한 주민활력지수에서도 1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마당에 삶의 질마저 떨어져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주거생활, 근로여건, 의료·복지 등까지 열악해서야 되겠는가.

제주는 지역발전지수는 12위에 그쳤지만 주민활력지수는 1위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는 삶의 질에서도 3위를 기록, 상위권에 올랐다. 전북은 지역발전은 낮았지만 깨끗한 환경과 싼 집값 등으로 4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지역발전지수 1위인 서울은 주민활력지수 10위에 그쳐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문제는 지역발전 격차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있다.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발전된 지역은 잘 나가고 낙후지역은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속도가 줄어들수록 격차가 커진다고 하니 전남의 미래가 암울하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지금처럼 방치해선 전남과 전북 등 낙후지역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경제가 위축되고 인구는 줄어드는 곳에 활력이 생겨날 수는 없을 것이다.

도덕 불감증이 부른 ‘개인파산’ 법조 비리

법률 브로커들과 손잡고 신용불량자를 모집해 개인파산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전직 고법원장과 브로커 등 법조 비리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직 고법원장인 이모 변호사가 사무장들과 짜고 10개월 동안 브로커들이 모집한 의뢰인 559명을 통해 14억 원 가량의 수임료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중 2억여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됐고, 이씨 자신도 변호사 명의 대여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따로 챙겼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법조인과 개인채무를 손쉽게 탕감받으려는 신용불량자, 이들 사이에 활개치는 브로커 등이 삼위일체가 돼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법조인이 브로커들과 손잡고 절박한 심정에 놓인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에 고등법원장까지 지낸 중견 법조인이 있어 법조계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개인파산 비리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개인파산의 급증은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속화시키고 서류조작을 통한 사기 파산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비리로 신안군 흑산농협이 부실화돼 퇴출 조치를 당했다. 개인파산 비리가 서민금융기관 부실을 부른 ‘도미노 파산’을 촉발시킨 셈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파산 제도가 일부 파렴치들의 돈벌이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법원은 개인파산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조인의 도덕 불감증 치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정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때뿐이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마 양 래

우리 아이도 혹시?

예전에 6살 어린이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 할머니를 따라 병원에 왔길래 시력검사를 해준 적이 있다.

검사 결과 아이는 오른쪽 눈 시력은 1.0으로 정상인데, 왼쪽 눈은 0.02로 아주 나빴다. 교정을 해봤지만, 안경을 써도 0.1밖에 나오지 않았다. 원시성 짝눈으로 인한 약시였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모도 “아이가 별 말이 없고 겉으로도 별 이상이 없어 아이 눈이 나쁘다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나이가 어려 안경 등으로 3개월 뒤 0.6, 6개월 뒤에는 1.0으로 시력이 회복됐다.

더 늦게 발견했더라면 상태는 더 악화돼 치료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평소 학교공부, 시험, 학원 등으로 바빠 눈관리에 소홀한 아이들. 그동안 눈검사를 하지 못했다면, 방학 때를 이용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어린이가 어느날 갑자기 “엄마 칠판 글씨가 안보여요”라고 하거나, 우연한 시력검사에서 시력이 나쁘다고 하면, 부모는 놀라 급하게 안과를 찾곤 한다. 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안타까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학 전 어린이 20명 가운데 1명, 학동기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이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원인으로는 눈의 굴절이상, 사시, 약시, 선천백내장, 속눈썹 찌름에 의한 각막손상, 망막이상, 시신경 이상 등이 있지만, 눈에서 초점이 맞지 않는 굴절이상, 특히 근시가 가장 많다.

근시는 멀리 볼 때는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혀져 흐리게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초점이 망막에 맺혀 잘 보인다.

근시가 있는 아이들은 먼곳이 잘 안보여 TV를 가까이서 보려고 하는데, 이때 부모님은 “눈이 나빠진다”며 혼내기 앞서 “우리 아이 시력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가 눈을 찡그려서 가늘게 뜨고 본다면 근시일 가능성이 높다.

근시는 보통 10세 정도에서 시작, 서서히 진행돼 20세를 앞뒤로 진행이 멈춘다.

하지만 악성근시의 경우 20세 이후에도 계속 진행돼 눈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해야 한다.

특히 10대 청소년은 근시와 난시가 빨리 진행돼, 2-3달에 한번씩 안경도수가 높아진다면 원추각막이라는 병이 원인일 수 있어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시를 교정하는 방법은 안경, 콘택트렌즈, 굴절교정수술(라식)등의 방법이 있다. 관리가 불편한 콘택트렌즈보다 근시교정 안경이 가장 무난하게 쓰이고 있다.

근시가 있을 때 모든 경우에 안경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근시가 있지만 시력감소가 별로 없고 생활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면 안경을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칠판글씨가 안보여 학교생활이 힘들다거나, 잘 안보여서 눈을 찡그리거나 눈을 자주 비빈다면 하루 빨리 근시 교정안경을 써 시력을 되찾자.

〈이연안과병원 원장〉

기 고

류 재 선

중국인은 ‘떼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오랫동안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 젓가락문화권을 이루며 살아왔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 퍼져있는 화교(華僑)들은 7000만 여명에 달한다.

화교자본은 중국개방이후 중국본토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 고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동남아에서는 상권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인에 대한 우리의 대접은 그동안 어땠는가!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이, 천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은커녕 번듯한 차이나타운 하나가 전국 어디에도 없다.

이 때문에 크게 사업을 하는 중국인 역시 많지 않다. 어느 중국 친구는 따지듯이 “우리가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3천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중국인들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중 한국이 아마도 유일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배타적이었는지 느낄 수 있다.

1944년과 1945년 광복전후 국내 무역 80%를 화교들이 차지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시절 두 번의 화폐개혁,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및 화교들에 대한 배타적인 각종규제, 북한침략위기 등의 사회불안으로 인해 화교들은 미국과 대만 등지로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그로인해 1960년대 12만여 명에 달했던 화교들이 현재 2만여 명뿐이며, 그중 광주와·전남에는 630여명뿐이고, 이들은 중화요리점, 잡화상 등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중국인 3700만 여명이 해외여행을 했는데 그중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겨우 100만명 수준으로 3%에도 못 미쳤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방문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비자절차와 까다로운 입국심사 때문이라고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들은, 불법체류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것은 마치 ‘빈대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하며, 이것만 완화해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수가 당장 2배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 했다.

이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한다.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

광주와 전남에는 산업근로자, 유학생 혼인귀화자 등 6천300여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쉽게 입국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절차는 하루 빨리 개선하고, 중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한다. 공무원, 기업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짱께’ ‘떼놈’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뿐 더러, 중국내 우리 동포들에 호칭하는 다소 비하하는 용어인 ‘조선족’또한 ‘재미동포’ ‘재일동포’처럼 ‘재중동포’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귀화를 했건 안했건 중국인들은 결코 ‘떼놈’ ‘짱께’도 아니다.

지난해 아시안 게임 남자 배구를 우승으로 이끈 후인정선수를 ‘떼놈’이라 욕하지 않는 것 처 럼 말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 정보반장〉

無 等 鼓

담쟁이

스물여섯의 꽃다운 한 처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반짝 인기와 좌절, 그리고 화장(火葬)까지…애절한 사연은 온·오프 라인에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고된 삶의 여정(旅程)을 지독하리만큼 쓸쓸히 마친 그니를 보며, 저간 우리들의 행태를 자성한다.

〈“가수가 아니라 스트립 댄서가 맞지 않나?” “또 벗게? 돈 떨어졌나 보네” “그냥 누드나 찍고 그만 좀 나와라”〉

‘섹시 노출’ 컨셉으로 복귀한 가수 유니는 무차별 ‘악플’에 맘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언어 폭력 속, 그미가 선택했던 유일한 저항의 몸짓은 극단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었다. 홈피에 남긴 마지막 글귀도 가슴을 저리게 한다.

“악플에 제가 상처받는답니다”

그녀가 인터넷 간접살인의 희생자라는 일각의 분석은 그래서 적확하다. 문제는 원색적인 댓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고,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자식’들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자살 뒤끝, 〈“간만에 미소가 지어지는 훈훈한 소식” “ㅋㅋㅋ” “잘 죽었다”〉라고 쓴,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의 저주는 얼마나 섬뜩한가?

연예인의 자살이 ‘베르테르 현상’(Werthers Effect)을 불러왔던 전례도 걱정스럽다. 숱한 젊은이가 그 죽음을 동경하고,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겁고 힘들다고, 담쟁이가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을 본 적 이 있는가 -.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그때, /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 물 한 방울 없고 /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 담쟁이 잎 하나는 / 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 /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담쟁이’)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확실치도 않은 황금돼지해 때문에 출생신고까지 미뤄서야

얼마전 버스 안에서 두 여성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었다.

한 여성이 지난해 12월 첫째 아이를 얻었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를 듣던 친구가 “빨리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내야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벌금이야 내고 말 것”이라며 음력으로 황금돼지 해가 시작되는 2월에(음력 구정 설날이 지난후)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에서 출산 증명서를 떼다가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집에서 낳았다고하면 된다고 했다. 듣고보니 아이를 집에서 낳았다고 하면 누가 시비할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공무원이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그럴듯 했다.

하지만 태어난 날짜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편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

근거도 없는 황금돼지해라는 말에 혹해 자기들 유리한대로 조작하는것은 황당하기만 할 뿐이다. ▲이정애·목포시 보광동

인삼 농가의 차광망 처리비용도 지원해줬으면

인삼 재배 농가들이 사용한 차광망을 처분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인삼은 햇빛을 받지 않는 가운데 자라야 하므로 농촌의 인삼밭은 비닐로 만든 검은 차광망을 설치해서 햇빛을 가려 줘야 한다.

하지만 농사를 다 지은 후에 돈이 없어 이것을 처분하지 못하고 집 인근 밭에 쌓아놓은 경우가 많다.

인삼 농가 대부분은 농촌 지역 일반 폐비닐은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인삼 재배용 폐 차광망에 대한 지원은 해주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몰래 태우기도 하고 야산 등에 내다버리기도 한다.

정부가 폐 차광망에 대한 수거에 나서지 않는다면 농민 상당수는 폐 차광망을 그냥 버리거나 땅에 묻거나 태워버릴 것이다.

가뜩이나 인삼값이 많이 떨어지고 중국산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폐 차광망까지 자기 돈들여서 처리하려는 농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농민만 탓할게 아니라 그것을 팔았던 업체들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안영찬·보성군 미력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